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⑬ 부산 해운정사 쉬나무

쉬나무가 일러주는 설법, '만유동일체'
〈萬有同一體〉

인터넷 지도대로 해운대역 2번 출구에서 해운정사를 찾아 올라간다. 빽빽한 도심 사이로 또 인간만의 영역이 생기는 공사 현장을 건너보며 답답증이 밀려왔지만 무심히 가다듬으려 애쓴다. 우리가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확장의 본성을 냉철하게 성찰하기에는 이미 지구가 존폐 기로에서 뜨겁다.

경사 낮은 비탈을 올라 일주문 앞에 섰는데, 지나온 길이 무색하게 드높은 계단이 하늘로 이어지고 있다. '108'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 싶어 하나, 둘, 세어 보지만 곧 잊는다. 사찰 경계에 있는 듯한 주택가 빈 터 군데군데에서 하얀 꽃들이 수북하게 이채로운 자태를 뽐낸다. 쉬나무들이다.

눈을 부라리며 귀를 연다. 꿀을 찾아 윙윙거리는 벌들이 보고 싶어서다. 기꺼운 상봉을 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방법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다. 머뭇거리는 사이도 잠시 계단 끝 원통보전이 보이는 경내로 들어가 버렸고, 아래로 가는 샛길 담장 위로 쉬나무가 흐린 날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다.

쉬나무는 운향과 낙엽 활엽 소교목으로 낮은 산지 및 마을에 자생하고 있다. 이 나무의 학명이 Euodia daniellii인데, Euodia는 eu(좋다)와 odia(향기)의 합성어이다. 그러니까 식물 분류학으로도 학명으로도 향기가 좋다는 건데, 꽃 무더기에 코를 박고 킁킁거려도 나를 망각시킬 만한 꽃향내가 끼쳐오지 않는다. 그럼 쉬나무는 누구를 위해 뜨거운 여름 모든 에너지를 향기 만들기에 쏟는다는 걸까? 꿀벌이다. 양봉가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밀원식물인 아까시나무를 영어권에서 bee tree(벌 나무)라고 한다. 그런데 쉬나무는 bee tree를 넘어 bee-bee tree라고 불린다. 이는 우리보다 서양에서 쉬나무의 밀원 가치를 더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구름이 낮게 내려앉고 뿌리는 듯 뿌리지 않는 듯 약한 비라도 내려서 그런지 꿀벌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그래도 꽃이 터질 대로 터지는 시기라면 귀가 따가워야 하는데, 혹, 이 지역도 과학이 다 밝히지 못한 수수께끼 같은 꿀벌들의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가 꿀벌을 포함한 곤충의 수분활동에 의존해 생산됩니다"라면서 "만약 지구상의 모든 벌이 사라져 이 농작물을 중국 쓰촨성 마을의 농부들처럼 인공 수정을 하게 된다면, 모든 식자재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라는 글을 발표했다. 자연의 식물을 원예품종으로 만든 것을 넘어 꿀벌의 역할까지 대체해야 하는 파국적 상황이 우리가 행하는 농약 살포 등을 포함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재앙은 우리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어두운 현실이 되고 있다.


쉬나무 옆으로 보이는 해운정사 원통보전.

있어야 할 자리에 부재한 생명체들에게 던져지는 연민이 고스란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독경 소리 들려오는 해운정사를 돌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헤아려본다.

해운정사 홈페이지를 보면, "경허-혜월-운봉 선사로부터 내려온 이마 위의 일구[向上一路]를 투과하여 불조의 정맥을 이어받으신 향곡(香谷)선사(1912~1978)께서는 40여 년 전, 1967년 진제 큰스님께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을 부촉하시면서 '네 대(代)에 선풍(禪風)이 크게 흥하리라' 고 예언하셨습니다"라는 소개글이 있는데, 이어지는 글을 보면 "이후 큰스님께서는 모든 인류와 일체 중생을 제도(濟度)하고 임제(臨濟)의 법맥을 이을 법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인연터를 찾아 전국의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시다가 마침내 해운대 장수산에 이르시어, 태백산맥이 굽이쳐 내려와 장중한 기운이 맺힌 것을 보시고는, 산의 모습이 장려(壯麗)하고 진중(珍重)하여 '수행자들의 최상의 공부터로구나!' 간파하시고 이곳에 1971년에 터를 잡아 창건하시게 되었습니다"라는 역사가 나와 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진제 스님은 해운정사에서 모든 분들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라는 화두를 깨달아 모든 분들이 부처님이 되고 도인이 되기를 희망하는데, 쉬나무와 벌의 공진화 관계를 참구하다 불광미디어에 실린 진제 스님의 2022년 신년 법어가 마음 깊숙이 와 닿는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자세를 바꾸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나와 더불어 남이 존재하고,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며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공존하는 만유동일체(萬有同一體)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 같다. 우리 인간이 참나를 찾아 해탈의 경지에서 극락의 순간을 느끼려면 자연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일심으로 가야 할 자연을 오로지 우리만을 위해 변형시켜 간다면 언젠가 꿀벌 실종을 대신할 인간 실종이 찾아올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꿀벌의 군집 붕괴 현상이 인간 세계에도 닥쳐올 것이며, 아, 그때는 그냥 우리도 무(無)가 되는 것인가?

가파른 계단 아래 해탈문 지붕 위로 쉬나무 꽃잎 하나 살며시 내려앉는 상상으로 참나 화두 붙잡고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간다. 해운대 파도가 철썩인다.

〈작가 겸 숲해설가〉

특별기고



이남섭의
불교시 감상

산문(山門) 가는 길

산사 오르면 마음 정갈해지고 마음 푸르러

산문(山門) 가는 길 / 이남섭

고향 집을 나와 산 넘으면
할아버지 옛집 같은 산문이 나온다.
오래전부터 걸었던 길이다.
비단결 바람이 부는 오솔길
바위틈으로 수군거리는
물소리 들린다.
인연이 깊어서일까.
흰 나비 한 마리
청량각* 위를 맴돌고 있다.
궂은 흔적 잘 감추는 사람을
유능하다 누가 말하는가.
피할 수 없는 보따리 짊어지고
오늘도 나는 산문으로 간다.
일주문 지나 세월각에 서서**
마음 하나 꺼내어 달빛에 씻어본다.
쿵쿵 울리는 법고소리
해탈문에 들어선다.
아득히 들리는 흰 나비의 날갯짓
모두 다 내려놓으라 한다.

*청량각(淸凉閣) **세월각(洗月閣)
순천 승보종찰 송광사에 있는 전각 이름이다.

무소유를 말씀하시고 무소유를 실천하셨던 법정 스님 다비식에 참석했던 인연으로 매년 새해 첫날이면 찾아가는 조계산 무소유 길, 내 삶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나 좋은 시 한 편 쓰고 싶을 때 종종 찾아가는 곳이다. 불일암은 그리 높지 않은 조계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법정 스님 영혼의 흔적이 대숲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오솔길 끝자락에 있다.

무소유길 오르다 보면 구불구불 이어지는 깊은 계곡 맑은 물소리가 사계절 도란도란 흐르면서 모든 생명의 원형적(原形的) 아우라에 젖어 들게 한다. 물소리와 함께 들리는 솔바람 소리, 숲속에 지저귀는 새소리 들으며 한가롭게 산사(山寺)로 오르다 보면 마음은 정갈해지고 몸은 늘 푸름에 깃들게 된다. 법정 스님 재가 제자 정찬주 작가는 "불일암은 작아서 아름답고 가난해서 맑다"라고 했다. 또한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법정 스님 다비식 이후 송광사는 내게 정신적 고향으로 새롭게 다가왔다. 난생처음 본 다비식 풍경은 나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다. 송광사 주변 수십 리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고 산사(山寺)는 사람 물결로 홍수를 이루었다. 특히 그날 산사에 108번 울려 퍼진 범종소리는 때 묻은 영혼을 감싸주는 큰 울림이었다. 이후 '불일암' 이란 시를 한 편 쓴 적이 있다.

"빠삐용 빈 의자를 달랑 남겨 놓고/ 머나먼 길 떠나신 큰스님 계신 곳/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오늘도 무소유 오솔길 오른다./ '인생을 낭비한 죄' 짓지 마라/ 조용히 들려오는 임의 말씀/ 만나러 가는 길 어찌하면/ 그 말씀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을까?"

법정 스님 다비식서 인연 후
매년 새해 첫날 불일암 찾아
"자연과 삶은 시(詩)의 모태"

송광사는 조상 대대로 인연이 깊은 사찰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걸어서 소풍을 자주 다니던 곳으로 고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익숙한 사찰이다. 나의 6대조 할아버지와 고조부, 증조부님 모두 유학자로 송광사 관련 한시를 많이 남기셨는데 6대조 할아버지(可隱 李箕大, 송재 서재필 선생 외조부)의 한시 한편을 음미해본다.

송광사(松廣寺) 임경당(臨鏡堂)의 상판운(板上韻)을 짓다 /可隱 이기대(1792년~1858년)

"높은 산은 구름을 머금어 희고/ 위태로운 난간에는 물이 철썩여 차갑다/ 속을 알고 하느님이 비를 주어/ 한가롭게 경물(景物)을 구경하도다."

나의 어머니는 유년에 몸이 약한 나를 송광사 천자암에 데리고 다니면서 불공을 올렸다. 어린 나이에 천자암 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준했지만 두 그루 동화 같은 곱향나무가 서 있는 천자암은 어떤 정신적 시원(始原)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옥타비오 파스는 "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며, 놀이이고 노동이며 금욕적 행위이다"라고 했다. 나는 가끔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에 젖는다. 정찬주 작가는 필자를 "고향의 계곡물 같은 시인"이라고 그의 저서〈행복한 무소유〉에서 과분하게 표현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선험적인 대상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니 송광사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 나에게 또 다른 마음의 고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요즈음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을 잃고 오직 출세(出世)를 위해서 피나는 단거리 경쟁에 열중하고 있다. 너무 출세 지향적이다. 그러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작 세상으로부터 퇴출(世出)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세상을 살면서 분주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한사코 깊이 감추도록 하라"라는 할아버지 말씀이 오늘따라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나는 어느 여름날 법고 소리를 듣기 위해 늦은 시간에 송광사에 갔었다. 둥둥둥 쿵쿵 딱딱딱 위아래로 좌우로 둥근 법고를 향해 몸을 날리며 북을 치는 스님은 마치 흰 새가 환생해 밤하늘을 나는 듯했다. 사람들은 어떤 감동했던 순간을 심미적(審美的) 공간으로 인식하곤 한다. 시는 우연히 눈에 띈 꽃 한 송이에서 탄생하기도 한다. 젊은 엄마가 안고 있는 천진난만한 어린애의 눈망울에 스미어 있는 진한 연민이 시의 출발일 수도 있다. 연민은 사랑의 하나이고 사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 관심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 출현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연과 삶은 시의 모태이다.

이남섭은 전남 보성군 문덕면 가내마을서 태어났다. 〈불교문예〉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보성문학상, 전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보성문인협회 8대, 11대 회장을 역임했다. 시집 〈마음의 강〉 〈아내의 詩集〉을 출간했다.

〈시인〉

